

2022년 6월 20일

HSBC, 마포구 구룡 공원 자연기반 해법 도시 숲 조성

자연기반해법 개념의 도시 숲 조성 사업 두번째 프로젝트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HSBC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

HSBC 코리아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구룡 근린공원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도시 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 근린공원은 HSBC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단체인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와 함께 추진 중인 NBS 개념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의 두번째 대상지다. 첫번째 대상지는 영등포 문래공원이며 작년 10월에 완료되었다.

HSBC 그룹의 글로벌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NBS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도시 숲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고 도시의 열섬 저감과 생물 다양성 증진, 탄소 상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을 수립하여 도시 숲이 저탄소 사회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HSBC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6월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구룡공원 도시 숲 조성의 핵심은 포장 도로 길을 따라 느티나무를 이중으로 식재하여 그늘을 통해 주변 보도 주면의 온도를 낮추고, 나아가 탄소 흡수와 도시 열섬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있다.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는 “기후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HSBC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열기를 식히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3월에 3차 도시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HSBC 코리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 비전 지원사업',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 환경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부분부장

02-2004-0882

chaewon.suh@kr.hsbc.com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자산은 3조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This news release issued by
HSBC Korea